



인터넷 게임방 열풍 전국 강타, 2천여개 성업중



▲ 인터넷 네트워크 게임방이 청소년들의 새로운 오락문화장으로 등장, 급속히 번지고 있다.

97년 하반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인터넷 게임방이 노래방, 전화방, 비디오방에 이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서울 신촌 연세대앞 인터넷 PC 게임방 '두루넷 슬기방'. 평일 한낮 인데도 1백여명의 공간에 줄줄이 놓여있는 1백여대의 PC앞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 대부분 20~30대 젊은층. 인터넷 네트워크 게임에 열중해 있어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젊은이들을 자석처럼 끌어들이고 있는 인터넷 게임방이 서울의 신촌, 압구정동, 대학가 등 '젊은이 거리'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열풍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게임방이란 고속의 통신망과 PC를 갖추놓고 여러명이 동시에 하는 네트워크게임, 시뮬레이션게임 등 화려한

최첨단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유료숍. 이용료는 시간당 1천5백~2천원 선. 또 인터넷 검색 및 문서작성도 할 수 있어 게임방은 컴퓨터세대인 대학생들이 몰리는 신촌, 강남일대를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서있다. 서울 홍대 앞에 위치한 또 다른 게임방 '인터넷겜돌이'. 이 곳에는 30여명의 젊은 대학생들이 PC 앞에 앉아 열심히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 한 칸에서는 워드프로세서를 통해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원하는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 열심히 인터넷을 뒤지는 학생도 눈에 가끔 띈다. 신촌 로터리에 최근 3개월 사이에 30여개 게임방이 생겨났다. 서울 목동 학원가에 위치한 CC마트는 중·고등학생층을 겨냥한 게임방. 윤우정사장은 "하루 평균 50명이 찾는다"면서 "학생층이 주 고객이지만 중장년층도 전자우편이나 문서작성을 위해 간혹 찾는다"고 말했다. 게임방은 최근 3개월 사이에 급증하기 시작, 최근 전국적으로 2천여개가 성업중이다.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 대도시에서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다.

전용회선 공급업체인 한국통신은 게임방 전용회선 수요가 급증, 현재 공급에 애를 먹고 있다. 한통은 올 상반기까지 1천5백회선 가량 임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데이콤은 현재 1천회선이 임대된 상태이나 주문

이 밀려있다. 김일환 데이콤 인터넷 사업본부장은 "게임방 열풍에 힘입어 전용회선 총 임대건수의 70% 가까이 게임방용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방 창업을 도와주는 게임방 컨설팅업도 성업중이다. 인터넷매니아, 랜드마크엔터테인먼트, LA인터넷내쇼날 등 10여개 업체가 매달 수차례씩 게임방 사업설명회를 열고 있을 정도. 게임방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것은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젊은층이 폭발적으로 늘고있는 데다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 20~30여대의 PC와 전용회선 등을 갖추는데 드는 비용은 7천만원 내외. 신촌 로터리 게임방을 자주 찾는다던 연세대 김모군(20)은 "게임타이틀은 한달만 지나면 싫증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 사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만만찮다"면서 "여러명이 함께 즐기는 네트워크게임에는 게임방이 적격"이라고 말했다.

접는 폴더 휴대폰 붐물

조개처럼 반으로 접었다 폈다하는 '폴더형 휴대폰'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폴더형 휴대폰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 업체들은 그동안 두껍을 여는 형태인 플립형 제품의 무게줄이기 경쟁에서 이제는



▲ 휴대하기 간편한 고급 모델의 폴더형 휴대폰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삼성, LG, 모토로라(왼쪽부터) 제품.

가격은 비싸지만 폴더형 제품으로 대결 무대를 옮겨 시장 석권에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초 모토로라가 폴더형을 출시한 이래 삼성전자, LG정보통신 등 국내업체도 폴더제품을 내놓는 등 폴더형 제품 출시가 줄을 잇고 있다. 휴대폰 대중화가 열리면서 일반고객과 차별화하는 고급형 모델을 찾는 고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비스업체들이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경쟁에서 벗어나 고급형을 통한 우량고객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 가격은 기존 단말기보다 10만~30만원 가량 비싼 30만~50만원대다.

먼저 포문을 연 업체는 모토로라. 모토로라는 지난해 10월 초 먼저 내놓은 폴더형 디지털 '스타택'을 통해 미국식 디지털휴대폰(CDMA)시장에서의 완패를 만회하겠다고 나섰다. 판매가는 40만~50만원대지만 2만여대가 몇주만에 동이 났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스타택의 돌풍에 맞서 삼성 애니콜이 '중후한 품격'을 내세우며 반격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대리점을 통

해 일제히 폴더형 PCS '애니콜'을 뿌리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다른 제품이 소나타급이라면 폴더형 애니콜은 SM5급"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전자측은 "출시가 되기도 전에 3만5천여명이 예약을 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LG정보통신도 지난해 12월 중순께 '싸이언' 폴더제품을 출시했다. LG정보통신은 "폴더형 PCS신제품은 곡선형에 액정화면을 크게한 110g대"라며 "판매가는 30만원대"라고 말했다. 현대전자도 12월 중순 여자 화장품 콤플렉트를 연상케하는 폴더형 PCS '걸리버' 6종을 30만원대에 선보였다. 이밖에도 팬택, 어필텔레콤, 텔슨전자 등 중견 휴대폰업체들도 폴더형 제품 개발에 착수, 올 상반기에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휴대폰도 보급형의 중저가 제품과 고급형의 고가 제품으로 수요가 나뉘는 추세"라며 "당분간 폴더형 제품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인용 패키지SW 저가화 정착

개인용 패키지 소프트웨어(SW)의 가격이 1만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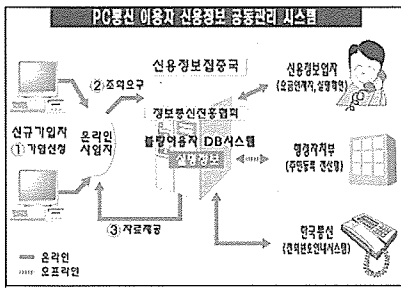
▲ 개인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가격이 대폭 낮춘 '제트오디오 4.0' (왼쪽)과 '하얀 종이'

티즌들 사이에 정품을 사용하려는 바람이 솔솔 일고 있다. 개인용 패키지 SW 업체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잇따라 제품가격 인하를 단행, 1만원 안팎의 패키지 SW가 대거 출시됐다. 한글과 컴퓨터가 '아래아한글 8.15' 버전을 1만원에 출시하면서 가속화된 패키지 SW의 가격인하로 큰사람정보통신·거원시스템·인포테크 등도 연이어 비슷한 가격대 제품을 출시, 개인용 패키지 SW 가격이 1만원대에서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1만원짜리 SW 출시는 당초 SW 가격하락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불법복제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정품 사용 의식을 높여 SW 구매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글과 컴퓨터(대표 전하진)는 지난해 8월 '아래아한글8.15' 버전을 출시하면서 6만6천원인 아래아한글 워드프로세서 가격을 한소프트 회원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 개당 1만원에 판매하는 파격적인 가격인하를 단행했다. 이 회사는 지난 연말까지 이 제품을 총 70만개 판매했다. 큰사람정보통신(대표 이영상)은 지난해 하반기 통신 SW인 '이야기 7.7'을 출시하면서 CD롬과 관련서적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망을 통한 판매시에는 4천4백원, CD롬타이틀 판매의 경우에는 6천6백원에 각각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판매가를 1만원 이하로 낮췄다.

거원시스템(대표 박남규)은 지난해 10월부터 대표제품인 '제트오디오 4.0'을 국내시장에 공급하면서 가격

을 9천9백원으로 책정했다. 이 회사는 또 사용자가 제트메일·보이스메일 등 세어웨어 제품의 정식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모두 1만원선에 정식 버전을 구매한 것으로 등록해주고 있다. 인포데스크(대표 최성섭)도 최근 '하얀 종이'를 출시하면서 정품 패키지를 2만7천5백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기존 사용자들을 위한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1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인포데스크는 출시기념으로 발행한 업그레이드 쿠폰을 보내면 사실상 정품인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1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인포데스크 이호찬실장은 "소프트웨어 가격이 낮아져도 판매수량이 증가해 정품시장을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정품 사용마인드 확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PC통신·인터넷 실명제 실시



▲ PC통신 이용자 신용정보 공동관리 시스템 구성도

남의 이름으로는 PC통신이나 인터넷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가입 실명제'가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또 접속 초기의 장애로 PC통신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는 요금을 안 내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PC통신·인

터넷 등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제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나가기로 하고 이같은 이용제도 개선안인 '온라인서비스 이용 증진방안'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사기사건이나 불건전, 음란 PC통신문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비실명 가입을 뿌리뽑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기존 PC통신 가입자 4백70만명중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틀리는 가입자를 PC통신회사에 알려 실명 가입을 권유했다. 실명 가입을 거절하는 이용자는 사용을 정지시킨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한국통신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가입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와 확인, 전화번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가입자도 골라낼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온라인 서비스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이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비실명을 통한 채납 및 불법이용사태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이를 막기 위해 비실명 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통부는 PC통신에 접속할 때 처음 10~30초 안에 접속이 끊겨 PC통신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문제도 해결키로 했다.

정통부는 내년 상반기에 초기접속 장애의 원인을 분석한 뒤 회사의 책임만큼 요금을 면제해줄기로 했다. 정통부는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인텔리전트TV와 1백만원 이하의 저가형 PC를 적극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음성인식기술을 이용, 음성만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

발할 계획이다.

컴퓨터 보급률 초·중·고생 16.5명당 1대



▲ 우리나라 초·중·고생 컴퓨터 보급률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16.5명당 1대꼴로 학교에 컴퓨터가 보급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배포한 '교육통계 1998'에 따르면 97년 12월 말 현재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된 교육용 컴퓨터는 모두 49만4천7백97대로 학생수 8백15만3천6백23명에 비해 볼 때 16.5명당 1대꼴로 컴퓨터가 보급돼 있다. 미국은 학생 11명당 1대꼴로 학교에 컴퓨터가 보급돼 있다.

이와 함께 학교 교원용 컴퓨터는 모두 11만6천1백42대가 보급돼 있어 전체 교원수 34만4천77명을 감안할 때 교원 3명당 1대꼴이었다. 초·중등학교가 확보한 컴퓨터 가운데 586급은 23만9천4백30대 (48%), 486급 이하가 25만5천3백67대 (52%)였고 교원용 컴퓨터는 586급이 9만6천9백8대 (83%), 486급 이하가 1만9천2백34대 (17%)였다. 초등학교에 보급된 교육용 컴퓨터는 19만8천6백79대로 전체 초등학생 3백82만1천7백54명을 감안, 19.2명당 1대꼴이며 중학교는

10만3천1백73대로 중학생 2백만3천8백81명에 비해 19.4명당 1대꼴이었다. 일반고에는 모두 5만1백28대가 보급돼 학생(총 1백38만7천명) 27.7명당 1대, 실업고는 14만1천3백40대로 학생(총 91만8천9백12명) 6.5명당 1대꼴, 특수학교는 1천4백77대로 학생(총 2만2천76명) 14.9명당 1대꼴이었다. 지역별 보유현황은 ▲ 초등학교의 경우 전북 7.6명, 전남 9.1명당 1대꼴인 반면 서울 33.5명, 광주 32명당 1대꼴이었으며 ▲ 중학교는 전남 9.9명, 충남 11.5명당 1대꼴이었으나 울산은 31.1명, 경기도는 29.2명당 1대꼴로 큰 차이가 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충남 6.6명, 충북 8.1명당 1대꼴인 반면 대구 31.4명, 광주 28.6명당 1대꼴이었다. 교원용 컴퓨터의 경우 초등학교는 2.4명당 1대, 중학교는 3.5명당 1대꼴이었으며 일반고 3.3명, 실업고 3.8명, 특수학교 5.4명당 1대꼴이었다.

‘몸에 걸치는 컴퓨터’ 곧 실용화

‘몸에 걸치는 컴퓨터’ 실용화가 2000년대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문



▲ 매서추세츠 공과대학 연구원들이 모니터가 내장된 안경 등 몸에 부착하는 컴퓨터를 내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주부가 장보러 갈 때 사야할 물건의 리스트를 읽으면 그 정보가 주부가 쓰고 있는 안경 속의 작은 마이크로폰 속에 바로 저장된다. 이들 품목은 곧 글자로 전환돼 안경렌즈 속에 구축된 컴퓨터 스크린에 떠오르게 된다. 가게 안에 들어서면, 이 주부의 ID(신원확인) 장치가 그녀의 쇼핑습관을 가게의 컴퓨터에 발송하며, 가게 컴퓨터는 주부의 안경 속에 내장되어 있는 모니터에 할인가격을 떠오르게 한다.

이같은 미래의 모습은 지난해 12월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2차 국제 착용 가능 컴퓨터(Wearable Computers) 심포지엄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제시한 수많은 전망들중 하나이다. 회의를 주최한 카네기 멜론대학의 랜디 퍼시씨는 컴퓨터의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컴퓨터가 일상적 의복 속에 꿰매어지기 충분할 정도로 작아지거나 정상적 크기의 안경 속에 내장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본다면, 이번 회의는 마치 보석상들의 모임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많은 참석자들이 모니터 스크린을 보여주는 사이보그 같은 두꺼운 접안렌즈가 달린 플라스틱 헤드밴드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중에는 손바닥에 연결되어 있는 손가락없는 장갑형태의 키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장치들은 보통 혁대에 매달려 있거나 가방 속에 들어가 있는 랩톱사이즈의 프로세서들에 연결되어 있다. “오늘날의 크고 무겁고 덩치 큰 컴퓨터들이 앞으로도 일반인들에 의해 사용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아

무도 없다”고 컬럼비아대학 컴퓨터학 조교수 스티브 파이너는 말했다. 그 대신, 염가의 착용 가능한 컴퓨터들이 대량 유통될 전망이다. 파이너는 모토롤라사가 이미 개발해낸 워치 페이지(watch-pager)를 예로 들면서, “실용적 장치들이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우리 몸에 부착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 빅 히트를 친 개발품은 외관상 보통의 안경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모니터가 내장된 검은테의 안경이다. 반투명의 이 모니터 스크린은 폭이 연필지우개 정도에 불과하고 안경렌즈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안경다리중 하나에 내장된 전자 회로가 여기에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그러나 착용자는 약 90cm 정도 떨어져있는 듯이 보이는 모니터상의 이미지를 보게된다. 모니터의 크기는 정상적 스크린의 약 4분의 1 정도로 보이게 된다. 그러나 모니터가 반투명이기 때문에, 착용자의 시야가 가려지지 않는다. 이 안경은 현재 미국방부의 무상 자금지원하에 보스턴의 마이크로옵티컬사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군인들은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니터가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즉, 군인들이 안경 등의 형태로 착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마이크로옵티컬사의 간부 마크 스피처는 설명했다. 스피처는 앞으로 언젠가는 소형 마이크로폰이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와 함께 작동될 수 있도록 안경테에 내장되고, 그 결과 착용자들이 컴퓨터에게 할 일을 지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S)